

##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편)

### I. [지난 메세지] 부르심 위에 확고히 선 삶 (행 6:4)

- A. 우리는 초대 교회의 시작부터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사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신대로 자신들의 부르심 위에서 확고히 서서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세워진 집사들(빌립, 스테반)의 스토리와 사울,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위대한 순간이 펼쳐진다.

**<sup>3</sup>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sup>4</sup>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 6:3-4)**

### II.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A. 시편 23편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이 시편에 대한 책만 모아봐도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와 설교가 되어졌다. 마틴 루터는 “저는 목자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에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했다.
- B. 이 시편은 6절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볼 때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윗은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그를 인도하셔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심으로 노래하고 있다.
- C. 시편 23편은 크게 전반부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과, 후반부인 5-6절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D. 우리는 시편 23편을 감사함으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수도 있다. 때로 우리 영혼이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릴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닮을 내리고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준다. 이 시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E.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목자’라는 대상에 비추어

노래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 (겔 34:10-16).

<sup>1</sup>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sup>10</sup> ...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sup>11</sup> ...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 <sup>13</sup> 내가 ...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sup>14</sup> **좋은 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 <sup>15</sup>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4:10-15)

F.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는 먹을 것이 풍족한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노래한다. 양들은 포식자의 위협이 없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혹은 배가 부를 때, 되새김질할 때 풀밭에 편안하게 눕는다. 우리도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sup>2</sup>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다** (시 23:2)

G. **쉴만한 물가:** 여기서 나오는 '쉴(Rest)'은 단지 육신적인 쉴 만을 의미하지 않고, 원수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노아'의 이름 뜻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H. **인도하시는데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약해 길을 잘 잃으며, 시력이 좋지 않아 목자의 음성과 인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목자는 특정한 소리(호출음, 노래 등)를 사용해서 양들을 불러모으며, 양들은 낮은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 10:3-5).

<sup>3</sup>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sup>4</sup>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sup>5</sup>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10:3-5)

I. **의의 길로 인도하심:** 의의 길이란 원문의 의미에서 '바른' 길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들은 가뭇이 들면 양들을 먼 곳까지 인도해 먹이나 물을 구한다.

<sup>3</sup>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시 23:3)

J.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찬양한다. 양은 항문 주위에 벌레가 생길 때 긁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하며, 목자는 이를 기름을 발라 벌레가 생기지 못하게 해서 치료하곤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면의 영혼을 소생 시키신다.

**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 2:6)**

K.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열심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선하신 이름을 회복하실 것이다 (겔 36:23; 39:7; 마 6:9).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36:23)**

L.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다윗은 그냥 어두운 골짜기가 아닌, 짙은 어둠이나 극단적인 위험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한다. 양들은 야간 시력이 약하고, 주변을 잘 살필 수 없는 어두운 환경을 불안해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을 말한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 사나운 짐승)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흠정역: 위로하시나이다) (시 23:4)**

M. **지팡이와 막대기:** 어두운 곳에서 목자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쉐베트)로 양들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려 유도하거나, 막대기(몽둥이)를 이용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N. 다윗은 5절부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것을 넘어서 자신을 연회로 초대해 환대하시는 분으로 노래한다. 그분은 기름을 발라 선대하시며,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분이시다. 다윗은 삶 전체를 통해 위협받고, 쫓기고, 수치를 겪었지만 (골리앗, 사울의 질투와 위협, 압살롬의 반역,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그를 여전히 선대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다 (아 1:5).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table)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5)**

**5 예루살렘 딸들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 (아 1:5)**

O.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특별히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중동 지방의 건조하고 더운 날씨에 기름(올리브유에 몰약, 유향 등을 섞음)을 바름으로 피로를 회복시키도록 하며,

치유를 위해 기름을 바르기도 했다 (눅 10:34; 약 5:14).

- P. **내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추적한다'는 의미에 더 가까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고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토브, 좋으심)과 인자하심(헤세드, 자비, 언약적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성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6)**

- Q. **여호와의 집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고 돌아서 오게 된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자신의 영원한 집임을 노래한다. 다윗의 이 성전 사랑은 시편 27:4절에도 잘 드러나 있으며, 시편 23편은 여호와 계시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며 그 신뢰와 감사의 고백을 마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 R.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이 귀하디 귀한 고백은 우리 삶 위에 깃발처럼 서서 (아 2:4)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부족함이 없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